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GRID

가제 : 더 그리드: 보이지 않는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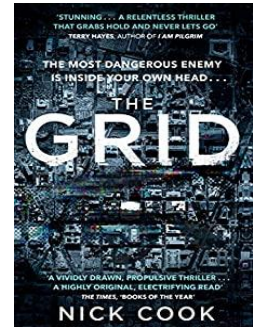
저자 : Nick Cook

출판사: Transworld Digital

발행일: 2019년 11월 14일

분량 : 407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슬픔이 남긴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리는 생생하고 추진력 있는 스릴러” - 「더 타임즈」, 올해의 책 선정!

★ “댄 브라운의 소설을 떠올리게 하는 중독성을 가진 세련된 스릴러 - 「선데이 타임즈」

이 세련된 스릴러는 현대 정치 현실에 모티브를 얻었다. 우선, 미국 대통령들은 매년 평균 3,000건에 달하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보낸 허위 위협에 불과하지만, 미 대통령을 지낸 40여 명 중 10명이 암살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위협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매년 16개의 스파이 조직과 미국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 프로젝트에 1,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60년 이후 정보 기관들은 감시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험을 진행해 왔다. 또한 심령술을 기반으로 사람의 의식을 통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도 있으며, 러시아 정부에서는 실제로 이 기술을 군사 훈련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소설 속에 녹아 있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로버트 톰슨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으로 야심찬 개혁가이자 국민들의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언제부턴가 왠지 모를 불안에 시달리며 매일 밤 자신이 암살당하는 꿈까지 꾀다. 이 악몽이 매일 반복되자, 톰슨 대통령은 어쩌면 이것이 예지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행정부 운영에 무리가 갈만큼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렀다. 겔프전과 자동차 사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미 군 소속 정신과 의사인 조쉬 카인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대통령을 치료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카인은 호출을 받고 백악관 근처 교회의 침탑 쪽으로 걸어간다. 그 곳에는

자신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전 해병대원과 대치 중인 경찰들과 요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 대통령 특수 경호 담당인 헤타 하트 요원이 그를 맞이한다. 헤타 요원은 조쉬가 반드시 그가 자신의 시야 안에서 머물러야만 조쉬를 보호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다. 그리고 곧 헤타 요원의 비호 아래 탑 쪽으로 올라갔다. 조쉬는 지금 상황에 대해 어안이 병병했으며, 그가 아는 것은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 한 남자가 24시간째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과 경호팀이 그 동안 이 일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뿐이다. 조쉬는 헤타의 뒤를 따라 탑으로 가는 사다리 위에 오른다. 문제의 인물은 창문 옆 난간에 앉아 월스트리트의 시위대나 기후변화, 테러 반대 시위자들이 쓰는 가이 폭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 가면은 예전에 영국 국회 의사당을 폭파시키려고 했던 무정부주의자들의 상징이었다. 삼십 대 중반 정도 되보이는 그는 군인의 말투를 쓰며 조쉬에게 등을 대고 벽에 앉으라고 명령했다. 조쉬는 그가 교회의 지하실부터 이 지붕에 이르기까지 총으로 모든 문을 부수고 왔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참이었다. 조쉬는 이 사람이 왜 자신을 만나기를 요청했으며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조쉬를 바라보더니 신을 믿는지, 톰슨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조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만약 조쉬가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어두운 음모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조쉬는 잠시였지만 그와 일종의 연대감을 느끼며 그에 이야기를 나누며 그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그의 몸으로 총알이 날아들었고 그는 조쉬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둔다. 그가 조쉬에게 들려준 뜻밖의 사실을 무엇일까? 톰슨 대통령은 왜 그런 악몽에 시달리며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일까?

점차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납치, 헬리콥터 사고, 테러와 핵무기 공격의 위협, 반역 및 권력 싸움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동시에 소설 속 인물들은 이제 더 이상 물리적 세계나 사이버 공간에서만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새로운 전장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의식이 된 것이다. 참신한 소재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닉 쿡 (Nick Cook)은 런던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국 최고의 국방 분석가 중 한 명이다. 이전에 그는 세계 최고의 군사 업무 저널 인 Jane 's Defense Weekly의 항공 분야 편집인으로 전 세계 신문에 글을 기고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논픽션 베스트셀러인 『The Hunt For Zero Point』의 저자이기도 하다.

제목 : SKINSHIP

가제 : 스킨십 - 한국계 이민자의 초상

저자 : Yoon Choi

출판사: Knopf

발행일: 2020년 예정

분량 : 266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단편 모음집



*** 세 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말하는 한국계 미국인의 삶과 가족, 정체성에 관한 진솔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단편 모음집**

이 소설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한국계 이민자 가정들의 초상이 담겨 있다. 이들은 대부분 1965년 시행된 이민법에 따라 수 십 년에 걸쳐 형성된 '장사(jangsa)' 집단으로 주로 로또를 팔거나 세탁소나 작은 슈퍼 마켓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저자는 코리아 타운과 도심 그 틈새에서 살아가는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의 삶과 경험을 이 소설에 녹아내리며 이민 1세대와 2세대 자녀들 간의 갈등과 토요일 밤 소주 한 잔과 일요일 교회 예배 시간 사이의 간극을 사실감 있게 포착해냈다. 또한 물리적인 변화와 감정적 소외를 핵심 주제로 삼아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게 된 친구들, 연인들, 가족 간의 관계를 그리면서 물리적 거리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민의 곳곳에 널려 있는 고통과 이별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소설이 바로 이 단편집에 실린 'Skinship'이다.

어느 날 아침, 열세 살 소녀 소현은 남동생 지호와 함께 학교에 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선다. 집 근처에서 아버지의 움직임을 살피던 둘은 아버지가 출근했으며 이제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서야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집에 도착한 둘은 엄마를 도와 재빨리 옷가지와 짐을 싸서 손수레에 싣고 저멀리 떨어진 우체국으로 향한다. 엄마는 결국 아빠와 고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물론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했던 때도 있었다. 소현의 아버지에게는 낭만적인 면모가 있었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늘 적극적인 남자였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남자는 걸핏하면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는 난폭한 남편이 되어버렸다. 이제 몇 주 후면 엄마와 소현과 지호는 그런 우울했던 가정의 그늘에서 벗어나 주 후면 이모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후 한동안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뜬금없이 아름다운 귀걸이가 담겨 있는 보석함을 어머니에게 내민다. 소현과 지호는 그 광경을 보며 잠시나마 행복해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감흥 없는 얼굴로 아버지에게 귀걸이의 가격이 얼마인지만 재차 묻는다. 소현은 그런 어머니가 너무 미웠으며, 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두려움에 떠난다. 그리고 그 날 밤 아버지는 밖에 나갔다 잔뜩 취한 채로 친구들을 데려와서는 엄마에게 술상을 내오라고 하며, 취기가 오르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마구 비난했다.

그리고 몇 주 후, 소현과 지호, 엄마는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이모의 예쁜 노란 미국 집에 도착한다. 두 이종 사촌은 이미 다 커서 집을 떠나 대학에 갔고 막내 딸인 수지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남은 방들에 지낼 수 있었다. 집은 아늑하고 편안했지만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된 걸 달가워하지 않는 듯한 이모부에 마음이 불편해진다. 또 수지는 어머니가 만든 열차 요리를 역겨워했고, 이모부는 처음 자신이 미국에 왔을 때 서툰 영어 실력으로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며 소현과 지호에게 앞으로는 계속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특히 소현은 자신의 동갑내기인 수지 앞에서 서툰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고역으로 느껴진다. 몇 달 후 소현과 지호는 학교에 입학했고 엄마는 언니와 형부의 눈치를 보다 서툰 영어 실력으로도 할 수 있는 고된 일들을 시작한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느 날 아침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걸려와 이모만 한국으로 간다. 얼마 후 한국에서 돌아온 이모는 장례식장에서 소현과 지호의 아버지를 만났으며 그가 미국으로 건너와 다시 가족과 함께 새출발할 수 있도록 외할머니의 유산 일부를 주고왔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전한다. 다시 만난 소현의 가족은 낯선 곳에서 지난 날을 뒤로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민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결혼 제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복잡성 등 인간의 삶의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최윤 (Yoon Choi)는 3 살 때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온 재미교포이며 현재는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에서 남편과 함께 네 명의 자녀들을 키우며 살고 있다. 그녀는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MFA를 받았으며 Stanford의 전 스테그너 펠로우였다. 그녀의 이야기와 에세이는 The New England Review, Michigan Quarterly Review, Narrative, 그리고 Best American Short Stories 2018에 실린 바 있다.

제목 : ALL AMONG THE BARLEY

가제 : 위피 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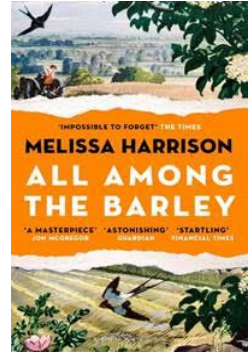
저자 : Melissa Harrison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문학소설



★ 2019 European Union Prize for Literature 수상작

★ 옹저버, 아이리시 타임즈, BBC 히스토리 매거진 선정, 올해의 책

★ "토마스 하디와 존 맥가번을 떠올리게 하는 지성과 시선을 가진 자연 소설 작가. 그리고 이점은 결코 이 소설을 잊을 수 없도록 만든다." - 「더 타임즈」

열네 살 에디 마서는 ‘위피 팜’이라 불리는 한 농장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전쟁이 남긴 어두운 흔적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대공황은 이 빈곤한 지역 사회를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었다. 이 마을을 찾은 런던 출신의 콘스탄스 피츠알렌은 에디에게 여러 모로 신선한 자극을 주는 존재이다. 이후 에디는 마을의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가치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향수가 가진 위험성, 역사의 가치,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목가적인 삶에 관한 소설이다.

1933년 영국의 이스트 앵그리아, 아버지가 집안 대대로 물려 받은 농장 ‘위치 팜’에서 살고 있는 열네 살 소녀 에디는 실용성과 표준을 중시하는 농가의 질서로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평범한 소녀가 아니다. 에디는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보다는 책 읽기를 훨씬 더 좋아했고 자연의 경치보다 머리 속에서 펼쳐지는 더 풍부하고 상상의 세계에 더 마음이 끌렸다. 에디는 사실 다른 형제들과도 꽤 다른 아이였다. 열여섯 살 오빠는 농장의 일들을 묵묵히 해내며 갈수록 아버지의 신임을 얻고 있었으며, 언니 메리는 그 해 봄에 결혼해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렸다.

다음 해 6월, 런던 출신의 콘스탄스 피츠알렌이 최신식 자전거를 타고 위치 팜에 도착했을 당시, 에디는 가족들과 건초 작업을 돕고 있었다. 에디네 농장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직접 손을 사용하여 건초 작업을 했다. 하지만 건초를 베는 칼날이 너무 날카롭고 위험했기 때문에 에디는 때때로 작업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큰 돌을 골라내는 일을 하곤 했다. 그리고 바로 그 때 에디는 자전거를 세워 놓은 채 앉아 있는 콘스탄스를 발견한다. 에디와 농장에서 말을 돌보는 일꾼인 존이 그녀에게로 다가가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활짝 웃으며 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순간 에디는 콘스탄스가 존과 아는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그녀는 먼저 에디의 이름을 부르며 에디가 건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곳에 찾아온 것이라고 말한다. 콘스탄스는 에디가 정규 교육 과정을 다 마친 것도 알고 있었고 존이 말을 관리하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일꾼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에디는 대체 이 여자가

누군지, 어떻게 자신과 이 농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콘스탄스는 런던에서 온 신지식인자, 농가 생활과 문화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 프리랜서 작가로 전통적인 농사 법과 가사 일, 요리법, 지역 방언들에 대해 조사하고 농가의 모습을 글로 쓰기 위해 이 곳 위치 팜을 찾아온 것이었다. 이제 막 학교 공부를 다 마치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 더 공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에디에게 콘스탄스는 선물과 같은 존재였다. 콘스탄스는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대신 집에 남는 것을 택해야 할지도 모르는 에디가 얼마나 학구적인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콘스탄스는 에디뿐만 아니라 위치 팜과 마을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 전쟁 후에도 전통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농가들을 극찬하며 앞으로도 이들이 계속해서 유구한 전통을 이어가야만 한다고 설득한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전통을 고수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심화되는 불확실성과 농장 관세 변경, 줄어드는 남자 일꾼들의 수, 정치 상황의, 기계화 농업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 점차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차였다. 그리고 에디 역시 전통과 진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콘스탄스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강한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국제 금융업자들이 아닌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업 금융 시스템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영국의 농업 전통을 수호한다는 명목 하에 반 유대주의적인 신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수확 시기가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더욱 팽팽해지고 에디의 아버지는 낙담에 빠져 더욱 술에 집착한다. 그리고 그 사이 에디의 엄마는 존과 수상한 관계에 빠져들고 에디 역시 전통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 사이에서 혼란스럽다. 아름다운 자연과 목가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국가주의, 가부장제도, 미신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야심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멜리사 해리슨 (Melissa Harrison)은 Costa Novel Award, Bailey's Women's Prize 후보로 선정된 바 있는 「Clay and At Hawthorn Time」의 작가이자 Wainwright Prize 후보로 선정된 논픽션 「Rain」의 저자이다. 또한 그녀는 The Times, Financial Times 및 Guardian에 글을 기고하고 있는 비평가이자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제목 : NEVER LOOK BACK

가제 : 뒤돌아보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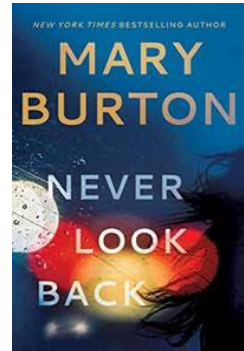
저자 : Mary Burton

출판사: Montlake

발행일: 2020년 7월 1일

분량 : 33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뉴욕 타임즈 및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전세계 1백만 명 이상의 독자를 사로잡은
저자 신작이자 현 아마존 베스트셀러!**

여러 명의 여성들이 연이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테네시 수사국의 멜리나 셰퍼드 요원은 충동적인 결심을 한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별 진척이 없자 멜리나는 인정하기는 싫지만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멜리나는 FBI 요원인 제로드 램지와 함께 다시 한 번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멜리나는 곧 이 사건들이 자신의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 빠진다. 감성적인 로맨스와 더불어 연쇄 살인사건을 파헤치며 벌어지는 매혹적인 스릴러 소설이다.

8월 17일 월요일 밤 열시 반 경, 한 남자가 도로 가에 서 있는 매춘부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듯 길 가에 서 있는 여성들을 바라보며 사람의 뼈가 부러질 때 나는 소리와 비명소리, 얼굴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온기를 상상한다. 이 날은 늘 보던 여자들 사이로 새로운 얼굴이 보였는데, 그녀는 키는 그리 크진 않았지만 꽤 날씬하고 건강해 보였다. 그 여자는 마치 그의 시선을 느끼고 있는듯이 그에게 유혹의 시선을 던졌고, 그는 그 여자가 수갑에 채워져 자신에게 굴복하고 온몸이 부서지는 모습을 상상하자 더욱 그녀가 간절해진다. 그는 차를 몰아 그녀에게 다가갔고 최대한 다른 매춘부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않기를 또는 CCTV에 찍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생각보다 좀 더 나이가 있는 이십 대 후반 정도로 보였지만 너무나도 그의 이상형과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 시나리오를 다 벗어나 그리 쉽게 그의 차에 올라타려 하지 않는다. 그는 더욱 난폭한 욕망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고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한다. 그러자 그녀는 칼을 들고 그를 위협했고 이미 여러 번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때마침 차들이 지나가는 틈을 타 그의 손아귀를 빠져나갔고 그는 자신이 통제권을 잃었다는 사실에 격분했지만 수 주 내로 그녀를 다시 찾아내 달콤한 복수를 하리라 마음먹는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새벽 여섯 시, 멜리나는 잠에서 깨어난다. 일주일 전 연쇄살인범으로 의심되는 그 남자의 손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한 그 여자가 바로 멜리나로, 그녀는 지난 칠 년간 직접 연쇄살인범 용의자를 잡길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희생자들은 모두 매춘부로 일하던 여자들이었고 멜리나는 그를 만날 기회를 찾기 위해 어느 날 부터인가 남몰래 매춘부로 변장하고

늦은 밤 길 거리 위에 있었던 것이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멜리나는 그 남자의 차 안에서 나던 강한 표백제 냄새와 좌석에 놓여 있던 수갑, 주사기들을 생생하게 기억났다. 멜리나는 자신이 만났던 그 상대가 결코 아마추어가 아니며 어쩌면 자신이 찾고 있던 그 용의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독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상사인 카터 잭슨에게 들키고 말았고 곧 수사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발령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 며칠 후, 카터 요원은 멜리나에게 찾아와 멜리나가 그 남자에게 휘둘렀던 칼에서 남자의 DNA를 확보한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FBI 프로파일링 팀 소속 요원인 제로드 램지가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알려준다.

멜리나는 드디어 자신이 쫓고 있던 살인 용의자의 DNA와 그 칼에 남아 있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제로드의 요청에 따라 그와 함께 범인을 잡기로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난 채 버려진 차에서 ‘에밀리 산체스’라는 어린 소녀가 발견된다. 멜리나는 이 소녀의 저항에 이기지 못해 차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얼마 전 자신을 위협한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마침 차 트렁크를 열어보니 독한 화학약품냄새가 나는 병들과 쓰레기들이 가득했다. 그 중 멜리나는 투명한 피클 병을 발견하고, 병을 열자 그 안에는 피클 대신 여섯 개의 작은 손가락들이 동동 떠다니고 있었다. 멜리나는 그 순간 어쩌면 이 운전자는 아이들에게 병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얼마 전 만난 그 남자와 동일 인물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에밀리를 만나러 간 멜리나는 그 소녀를 보자 옛 생각이 떠오른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 길가에 버려진 진 채 발견되었다가 자신을 발견한 경찰 가족에 입양되어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멜리나는 아직까지도 자신을 그곳에 버려두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었고 에밀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 역시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다시 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동차 주인이 상습 절도와 불법 약물 투여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 출소한 59세의 여성 ‘보니 리 거티’라는 것을 밝혀낸다. 하지만 정작 보니의 사진을 보고 유령을 본 듯 겁에 질린 사람은 에밀리가 아니라 바로 멜리나였다. 멜리나는 이 사건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는다. 또한 멜리나는 수사 과정 중 제로드와 조심스럽게 가까워져 그 이 두 연쇄 살인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과연 이 사건들은 멜리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천천히 긴장이 고조되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과 비밀이 밝혀지는 동시에 잔잔한 사랑이야기가 더해진 흥미로운 수사물이다.

<저자 소개>

메리 버튼 (Mary Burton)은 뉴욕 타임즈 및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35권의 로맨스 소설과 5권의 스릴러 소설을 쓴 작가이다. 현재 그녀는 버지니아에서 남편과 세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며 살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SIGNS OF LIFE

가제 : 싸인 오브 라이프: 길 위에서 만난 환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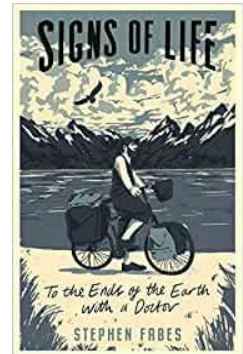
저자 : Stephen Fabes

출판사: Pursuit Books

발행일: 2020년 8월 6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회고록, 여행기



*** 한 의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전세계를 돌며 기록한 생생한 회고록이자 앉은 자리에서도 아름답고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드넓은 세상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아름다운 여행기**

의과 대학 진학 직전, 스티븐 페이브스는 마치 본능에 이끌린 듯 형과 함께 칠레로 떠났고 그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다. 마음만 먹으면 그는 콜롬비아의 울창한 숲으로, 끝없이 펼쳐진 오악사카의 해변으로, 높은 고원으로 심지어는 알래스카까지- 무한한 자연의 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자연을 탐험하는 대신 집으로 돌아와 리버풀에서 의대에 진학했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의 몸이라는 멋지고 신비로운 대상에 대해 공부하며 사람과 의학에 대한 경이로움을 갖게 되었다. 수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어느 날 처음으로 환자의 심장이 멈추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자신이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데 실패했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된다.

당시 그는 자신이 가진 인류를 향한 타고난 연민과 선한 마음이 스스로를 의사의 길로 이끌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의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결코 본능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학창 시절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과 대학에 지원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저자는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에 뛰어든 것인지, 어떻게 한 번도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이 거대한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지 문득 깨닫고 엄청난 두려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정말 운 좋게도 그는 금방 다시 의사의 삶에 적응했고 몇 년 동안 밤낮이 바뀌는 생활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응급실을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세부 전공 분야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다시 한 번 위기를 맞는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앞으로 자신의 10년은 어떻게 될지 두려워진 것이다. 그에게는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시간, 더 다양한 경험들, 즉 아직까지 겪지 못한 더 많은 모험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2010년, 그는 의사 일을 그만 두고 다시 오토바위 위에 올랐고 전세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는 비교적 빨리 의료 현장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토바이에만 의지해야 하는 일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의사로서의 직업 정신에 대해서는 쉽게 잊지 못했다. 대륙을 여행하면서 그는 힘든 망명 생활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의료 처치 대신 공동체의 헌신과 사람들의 호의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는 히말라야에서 온 몸이 썩 썩 얼어붙은 수도사를 만난 후 이 세상에서 소외된 곳에서의 의료 체계, 영양소 및 난민 수용소, 도시 빈민가, 낙후된 병동의 모습에 더욱 마음을 쏟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훌륭한 의사란 단지 수수께끼 같은 질병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에서 그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의료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공통된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의 때가 많이 묻지 않아 신비로운 본연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자연 풍광을 담은 여행기이자, 세계 각지 소외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의사로서의 자신의 철학과 고민을 담은 회고록이다.

<목차>

서문

1부: 런던에서 케이프 타운으로

1장. 표정을 하고 있는 저 남자를 잡아라

2장. 소름

3장. 주변 도시들

2부: 우슈아아에서 데드호스로

4장. 척추

5장. 죽어 자빠지다

3부: 멜버른에서 뭍바이로

6장. 열

7장. 합병증

8장. 맥박

(이하 생략, 총 5부 2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스티븐 페이브스 (Stephen Fabes)는 방향을 좋아하고 종종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곤 하는 의사이다. 그는 75개 국가들을 돌며 53,000 마일에 걸친 6 년 동안의 모험 끝에 2016년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글은 The Guardian, Telegraph, Geographical, CNN 및 BBC에 소개되었으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유명한 대중 연설자이기도 하다. 현재 그는 런던의 세인트 토마스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휴무일에는 달리기를 하며 지낸다. 이 책은 그의 첫 번째 책이다.

제목 : BE MY GUEST

가제 : 같이 식사하실래요?: 함께 하는 요리와 식사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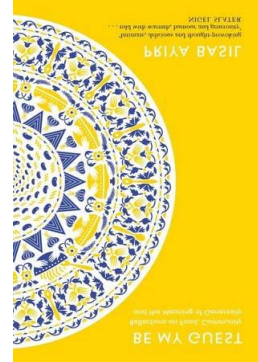
저자 : Priya Basil

출판사: Canongate Books

발행일: 2019년 10월 24일

분량 : 128 페이지

장르 : 사회, 문화



★ ”저자는 이기적인 것들로 가득한 우리 문화 속에서 '우호적인'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공통성이 가진 문제와 가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고도 재치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 레이첼 커스크

★ “따뜻함과 유머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친밀하고도 맛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 - 유명 요리사, 나이젤 슬레이터

때에 맞춰 음식을 요리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은 인간인 우리들이 매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다. 이 필수 활동은 또한 관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같은 식탁에 둘러 앉아 친구 혹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세계, 종교, 정치, 생활 및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이 책은 이렇듯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기본 행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접'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책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일과 그들과 또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행위는 타인에게 아낌없이 무언가를 베푸는 인간의 문화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제공되는 음식의 종류와 양,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과 그 대상, 이 모든 것들이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대접 혹은 그 이상의 의미를 정의하는 요소들이 된다. 한 통계 결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영국, 미국, 독일 사람들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요리하고 먹는 일에 투자한다고 한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 요리 시간을 더 적게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많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음식 섭취를 하는 행위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별 특별한 것 없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가는 일은 미술관에 가는 것만큼이나 흥미로운 일이며 주방에 내내 서서 요리하는 행위는 마라톤을 뛰는 것만큼이나 상당한 체력 소모를 요하는 일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가와 문화 간의 변화, 개인들의 갑작스러운 재정 상황의 변화들, 손님이 되는 것의 사적이고 정치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차고 넘치게 가지고 누리고 있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고통 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환영을

받는 동시에 온갖 문제의 근원으로 낙인 찍히고 비난 받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함께 요리하거나 식사하는 행위의 가치를 잊고 점점 더 이러한 행위들에 최대한 적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자는 오늘 날 대접이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환대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보다 친절하고 친근한 세상이 오기를 열정적으로 꿈꿔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분열보다 함께 나누고 환대하는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훨씬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저자 소개>

프리야 바질 (Priya Basil)은 런던에서 태어나 케냐에서 자랐다. 현재 그녀는 런던과 베를린을 오가며 살고 있으며 첫 소설 『Ishq and Mushq』로 Commonwealth Writer's Prize, Dylan Thomas Prize for Young Writers, IMPAC Dublin Literary Award의 후보에 오른 바 있다. 그녀의 또 다른 소설인 『Strangers on the 16:02』 역시 평단의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2010년 그녀는 세계 평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학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단체인 Authors for Peace의 공동 창립자가 되었다.

제목 : UNTAPPED AGILITY

가제 : 날마다 재부팅: 민첩성, 모든 변화에 대한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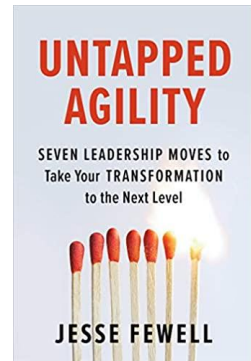
저자 : Jesse Fewell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20년 7월 2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영, 자기계발



* “모든 이들이 무작정 '민첩'해질 순 없다. 이를 위해서는 노력과 헌신, 영감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바로 이 여정을 위한 자신의 통찰과 경험을 들려준다.” – Business Agility Institute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이반 레이번

* “이 실용적이고 정직한 책에서 저자는 진정한 민첩성이란 섬세한 인지 능력과 대응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 Scrum Alliance의 멜리사 보그스

사실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자주 강조되는 개념이지만 동시에 많은 리더들에게 좌절을 느끼게 하는 용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혁신을 꿈꾸지만, 실상은 '혁신'을 시도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어 리더들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들과 리더들은 날마다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른 변화, 더 극심한 경쟁이 눈 앞에 닥쳐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대응 방식으로 날마다 조직을 재부팅 하면서 더 뛰어난 민첩성을 획득하는 것 뿐이다. 이 책은 바로 이 혹독한 변화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가 말하는 '민첩성'이란 조직 개편의 핵심이자 조직을 더욱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전략적 자세이다.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리더들은 흔히 자신의 제한적인 영향력과 고질적인 관행, 비난의 화살을 맞으며 좌절을 느낄 때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존의 질서와 안정감에 자신을 위탁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경영 전문가인 저자 제스 페웰은 이 책에서 민첩성 이론에 대해 설명한 후 조직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일반적인 변화 패턴을 분석한다.

또한 그는 ‘급속 성장’이란 논리적인 첫 단계를 통한 초기 성과물이며 그 다음에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찾아오는 ‘반등’은 급속한 성장 덕분에 이루어지는 추가 이익을 향한 활로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러한 반 직관적인 반등 작용을 통해 민첩한 전환을 이루는 데 필요한 7가지 변화 리더십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저자는 사람들의 흔한 생각과는 달리 변화란 결코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변화란 우리 눈 앞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통과해 이루어야 하는 성장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시대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표적인 자질인 민첩성 획득을 위한 안내서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거나 변화 앞에 좌절 중인 리더들을 위한 책이다.

<목차>

- 1장. 변화가 무서워요
- 2장. 팔아먹기는 그만하고 정렬을 시작하라
- 3장. 그냥 줘버려라
- 4장. 교과서는 치워라
- 5장.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하기
- 6장. 문화와 구조를 함께 공략하기
- 7장. 거울을 보라
- 8장. 서사를 가져라
- 9장. 당신의 변화를 변화시켜라

<저자 소개>

제시 페웰 (Jesse Fewell)은 보스턴에서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고위 지도자들이 조직의 혁신, 협업 및 비즈니스 민첩성을 달성하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코치이다. 경영계의 선구자로서 그는 PMI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내에서 민첩성 개발 팀을 설립하여 성장시켰으며 Scrum Alliance의 리더쉽 부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그의 전작들은 11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5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2013년 업계에서 공로를 인정 받아 IEEE Computer Society Golden Core Award를 수상했다.

제목 : PARADOXES

가제 : 패러독스 이야기: 마땅하지만, 받아들이기 수 없는! 대중을 위한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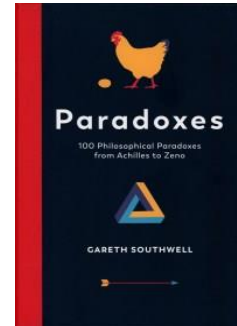
저자 : Gareth Southwell

출판사: Metro Books

발행일: 2020년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철학



***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채로운 것인지 보여줄 패러독스, 즉 역설에 대한 이야기**

30년간 철학을 연구하며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철학 강의를 하고 철학에 관한 글을 써온 철학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한 저자 가레스 사우스는 지식들, 기쁨은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통한 당황스러움, 혼란을 독자들의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경험을 위해 이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과 그들의 사상들에 대해 친숙해질 것이다. 저자는 그 어떤 사전 지식이나 철학적 이해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책에 수록된 수학 및 확률 역설에 관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역시 수학 천재가 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철학이든 수학이든 어떤 특정한 학문이나 세계관을 접할 때는 평범한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이해하는 과정에서 작은 좌절들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더욱이 살면서 단 한번도 철학 책을 집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더더욱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데이비드 흄과 같은 철학자들의 책을 스스로 탐독해보고 싶은 영감을 얻게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역설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따져보면 역설은 모순되거나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 실생활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결론이나 우리의 직관과는 모순되는 것을 역설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철학적인 정의에 따라, 영국 철학자 R. M. 생스버리는 역설이란 “명백히 수용 가능한 추론을 통해 도출된, 명백히 수용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바로 역설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정의와 바로 이 철학자의 정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역설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역설이란 타당한 추론으로부터 도출된 터무니없거나 모순적인 혹은 반 직관적인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줄 것이다.

저자는 역설이란 우리 인간이 가진 사고의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상할 수 있는 지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는 8개의 장을 통해 매력적인 역설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사고의 실험, 재미있는 질문들, 실제 사례 등을 통해 우리 주변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바꿔 줄 책이다.

<목차>

- 1장. 역설이란 무엇인가?
- 2장. 아는 것과 믿는 것
- 3장. 모호함과 정체성
- 4장. 논리와 진실
- 5장. 수학적 역설
- 6장. 확률적 역설
- 7장. 공간과 시간
- 8장. 불가능
- 9장. 결정과 행동

<저자 소개>

가레스 사우스웰 (Gareth Southwell) 박사는 영국 사우스 웨일즈에 거주하는 철학자, 작가 및 일러스트레이터다. 그는 30년 동안 철학, 연구, 교육 분야에 종사해 왔으며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철학 관련 서적을 집필했다. 또한 그는 'Gareth J. Southwell'이라는 가명으로 소설을 쓰기도 했으며, 전문 서적 및 잡지의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기도 했다.

제목 : DON'T BELIEVE EVERYTHING YOU FEEL

가제 : 기분에 속지 마세요: 감정 관리 솔루션 - 스키마 요법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의 악순환 끊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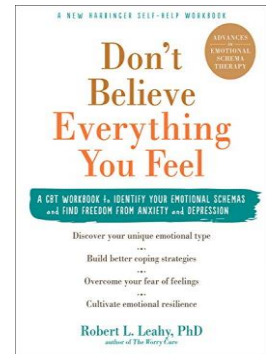
저자 : Robert Leahy

출판사: New Harbinger Publications

발행일: 2020년 7월 1일

분량 : 216 페이지

장르 : 심리



★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 - ABPP, Face Your Fears의 저자, 데이비드 F. 톨린

★ "인지 및 행동 원리를 사용하는 감정적 스키마 치료법에 대한 책. 아마 이 책은 임상 심리학의 고전이 될 것이다." - 보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뇌 과학 교수, 슈테판 G. 호프만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로봇은 이제 훌륭한 요리사처럼 근사한 저녁 식사도 만들 수 있고 바닥을 청소하거나 전화를 받는 일도 할 수 있으며 위험한 곳에 들어가 폭탄을 제거하거나 직접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다. 심지어 로봇은 이제 세계적인 체스 챔피언도 이길 수 있으며 자폐증을 가진 아이를 치료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렇다면 로봇과 다른 인간의 유일한 능력을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로봇은 불안, 욕구, 슬픔, 분노, 흥분, 외로움 같은 것은 결코 느낄 수 없다. 인간은 로봇과 달리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통증 및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감정'과 '생각'을 혼동한다. 그러나 생각은 사실에 대한 의견 또는 신념이며 감정은 일반적으로 그 생각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다. 예를 들어 일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예측일 뿐이며 실제로 내가 그 사실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고 좌절할 일은 없어진다. 또한 만약 주말 내내 혼자 보내더라도 내가 정작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이 일들 또한 아무런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흔히들 생각은 감정의 반의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대상이다. 하지만 '나는 루저'라는 생각은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지고 이 '슬픔'은 다시 '난 언제나 혼자일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결국 우리를 우울하게, 무력하게, 분노하게 만든다.

하지만 한가지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소식은 이러한 악순환 때문에 생기는 힘들고 어려운 감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일상 생활 속에서도 많이 지쳐 있다. 행동 치료 전문가인 저자는 이러한 감정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며 우리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힘든 감정들은 행복, 사랑, 즐거움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감정들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행동 치료와 감정적 스키마 요법을 혼합한 획기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감정에 대한 나의 개인적 믿음을 깊이 탐구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유해한지 판단한 후 건강한 대처 전략을 채택할 동기를 탐색하도록 도와준다. 각 장에는 감정을 보다 생산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기 평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 중요한 질문 및 실습법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또한 이 세상에 '나쁜 감정'이란 없으며 다만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슬픔, 분노 또는 불안을 겪고 있다면 건강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의 감정을 잘 관리하면서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책이다.

<목차>

- 1장. 감정이란 무엇인가?
- 2장. 감정 확인하기
- 3장. 당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기
- 4장. 감정적 스키마 접근법
- 5장. 나의 감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 6장. 나는 내 감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 7장. 나는 통제 불능이다
- 8장. 혼합된 감정을 견딜 수 없어
- 9장. 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
- (이하 생략, 총 12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로버트 L. 레아이 (Robert L. Leahy) 박사는 The Worry Cure를 포함한 27 권의 책을 저술하고 편집한 작가이다. 그는 많은 국가 및 국제인지 행동 치료 (CBT) 조직을 직접 이끌었다. 또한 Psychology Today에 정기적으로 블로그 게시글을 올리고 있으며 HuffPost에도 기고했다. 저자는 전 세계 컨퍼런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연자이며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The Times, The Washington Post, 20/20, The Early Show와 같은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거나 출연 한 바 있다.

제목 : THE DEEPLY FORMED LIFE

가제 : 다시, 본질로: 본질의 회복을 위한 5 가지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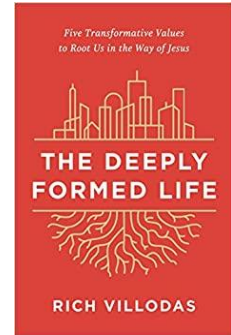
저자 : Rich Villodas

출판사: WaterBrook

발행일: 2020년 9월 15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기독교



*** 온갖 매체와 소셜미디어 속에 찌들어 예수의 형상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예수를 닮은 '진정한 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줄 책**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날의 내가 되기까지 나는 누구의, 무엇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이 책의 저자 리치 빌로다스는 75개가 넘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신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의 목사이기도 하다.

우리 출신 가족, 고도로 조작된 소셜 미디어, 개인적 성과물과 소유 자산, 효율성, 지적 수준 및 재능을 기반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의 가치 판단 시스템으로 정해진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의 본질에 다다르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본질을 향해 돌아가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지속적인 변화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며 자신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좇으면서 계속 그 길을 탐색해 왔다고 고백한다.

또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모습에 따라 깊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형식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의 삶의 속도는 하나님과 연합하기에는 너무나 정신 산만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하게 만드는 법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건강에 해로운 것들로 변해 버렸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내적 성장을 자극해줄 '잊혀진 다섯 가지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인종, 성, 사회적 정의와 기독교적 신앙을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바로 그 다섯 가지 가치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 수도원의 가치: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플러그를 뽑고 대신 영혼을 돌보아라.
- 정서적 건강의 가치: 왜 얕은 우물에서는 깊은 사랑이 나올 수 없는가?
- 건강한 성 가치: 우리 몸은 어떻게 우리의 영성과 연결되는가?
- 다인종 가치: 인종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영적, 내부적 접근
- 선교의 가치: 소비주의 세계에서 예수의 손과 발이 되는 법

우리가 갈망하는 뿌리 깊은 곳, 즉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소, 우리의 목적을 찾는 곳에서 살기 위한 로드맵이 되어 줄 책이다.

<목차>

페테 스카제로의 서문

1장. 서문 앞은 깊이로 형성된 나

2장. 지친 삶의 위한 명상 리듬

3장. 깊이 형성 되는 삶을 위한 리듬

4장. 분열된 세계를 위한 인종적 화해

5장.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내적 탐구

6장. 내적 관찰을 통한 깊은 형성을 위한 연습

7장.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문화에 대한 성적 완전성

(이하 생략, 총 1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리치 빌로다스 (Rich Villodas)는 켄스 주 엠허스트에 위치한 75개가 넘는 국가 출신들이 모여있는 다민족 교회인 New Life Fellowship의 담임 목사이다. 그는 목회자가 되기 전 소그룹 사역을 감독했으며 전도 담당 목사로 활동했다. 그는 Nyack College에서 목회 사역 및 신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명상적인 영성, 정의와 관련된 문제, 설교 기술에 관한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다.